



-충남 “3농혁신”농업 6차산업 활성화-

일본 선진현장 연수 결과보고

2014. 11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I. 연 수 개 요

○ 연수목적

- 3농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업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사례 발굴
- 우수사례에 대한 선진농업 접목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방문기간 : 2014. 11. 3 ~ 11. 8(5박 6일)

○ 장 소 : 일본(오사카, 미에현, 나가노, 이이야마)

○ 방문기관 : 고라정사무소, 오부세시청, 나가노 농업회의소

<구마모토 안테나숍, 쓰루하시전통시장, 미에현 모쿠모쿠 수제농장, 미쯔노에끼 마가렛스테이션, 오부세6차산업센터 등>

II. 연 수 일 정

일 자	지 역	일 정	비 고
제1 일 11/03 (월)	오사카	▶구마모토 안테나숍시찰(비공식방문) ▶쓰루하시전통상점가시찰(비공식방문)	
제2 일 11/04 (화)	우에노 히가시오미 고라쵸	▶모쿠모쿠운영에 관한 설명청취 및 원내 시찰 ▶미치노에키(물산관)마가렛스테이션시찰(비공식방문) ▶고라정주민참여형마을만들기우수사례 시찰(西村상)	
제3일 11/05 (수)	세키구쵸 시라가와 후다카야마	▶명보레이디스 토마토케참가공회사 공식방문 ▶유네스코등록세계유산인시라가와합장촌시찰 ▶다야야마전통건축물보존지구시찰	
제4 일 11/06 (목)	호다카정 오가와촌 나가노	▶일본최대규모의대왕와사비농장 견학 ▶오가와무라 ①오야키무라,②미치노에키(산산시장)등6차산업을 통한마을 만들기에 관한설명청취	
제5 일 11/07 (금)	오부세 나가노 우마쥬쿠	▶오부세정 ①오부세정마을가꾸기,②오부세6차산업센터(농산물가공장/직매장/농 가레스토랑)④밤가공공장 사쿠라이 ▶나가노현농업회의소방문	
제6 일 11/08 (토)	나고야	▶미치노쿠야(동북3현의 안테나숍)시찰	

III. 선진현장 세부연수 내용

1 일본 마을 만들기

1) 개요

- 일본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는 마을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의 지원을 받는 형식의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이다.
- 추진 배경
 - 1950~6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대도시문제, 환경문제, 농촌 지역과소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시민운동으로서 마을만들기 대두
 - 이후 시민운동은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주민과 전문가의 협조적인 활동을 얻는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사업으로 전개
- 일본 마을만들기의 목적
 - 시민 자신이 문제로 인식하는 주체의식 부여
 -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방법 고려
 - 주체성을 가진 개성과 문화가 있는 마을만들기
 - 이질적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조화롭고 새로운 사회조직 형성
 - 인재발굴
 - 이념에 멈추지 않는 실천의 의미 내포
- 발전 과정

구분	내용
196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문제인식기 급속한 도시화와 공해문제 등에 대한 저항적 시민운동, 역사보전, 지역살리기 운동 등 주민, 전문가, 자치체에 의해 ‘마을만들기’와 공공이 지원하는 시책 진행 사례 : 나고야시의 사카에 히가시지역
1970년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전개 주민리더쉽을 통한 종합시가지 정비, 참가형 단지 재건축 시행, 거리만들기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전개되고 성과를 보임 사례 : 일촌일품운동, 동경도 세타가야구의 타이시도지구 “수복형 마을만들기”

<p>1980년대</p>	<p>마을만들기 확산기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행정이 중심이 되고 전문가가 협조하는 형태의 활동 전개 마을만들기 워크숍, 마을만들기 센터 등 주민의 의지를 사회에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과 공간 마련. 사례 : 고베시(1981)와 세타가야구(1982)에서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p>
<p>1990년대</p>	<p>마을만들기 정착기 시민단체, 전문가, 일본 내 선진 지자체의 시책, 재단에 의한 경제적 지원, NPO법의 성립 등으로 전국 각지로 마치즈쿠리 보급 및 정착 협의회, 시민조직, NPO가 마을만들기의 중심을 이룸 사례 : 시민활동추진조례, 니세코초 카나가와 야마토시</p>
<p>2000년대 이후</p>	<p>새로운 공공사회기 단순한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참가, 녹지나 농지의 보전, 고령자를 위한 마을만들기, 하천보전,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하게 진행 새로운 공공의 개념으로 근린자치정부와 같은 시민, 기업, 행정 모두가 인정하는 수평사회구조로의 변화</p>

2) 마을만들기 현장조사 결과

① 고라정(甲良町)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방문일시	설명자 : 니시무라 가츠키에
2014. 11. 4. 14:40~16:40	 <p>道の駅 せせらぎの里 こうら</p> <p>甲良町企画監理課 課長補佐 西村克英 니시무라가츠키에</p> <p>〒522-0244 滋賀県犬上郡甲良町大字在士353-1 TEL 0749-38-5061 FAX 0749-38-5072 E-mail:nishimura-katsuhide@town.koura.lg.jp</p>

□ 고라정(甲良町)의 개요

- 위 치 : 일본 시가현 이누카미군 고라정(日本 滋賀県 犬上郡 甲良町)
 -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京都)시에서 비교적 가까운 시가현에 속한 전형적인 도시 근교 농업지역
 - 지역 내에 이누카미가와(犬上川)라는 1급 하천이 흐르고 있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도 풍부
- 면 적 : 약 13.62km²
 - 13개 자연마을로 구성
- 인 구 : 약 7,500명(2014년) ⇐ (2009년 8,400여명)
 - 시가현 내 19개 시/정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
- 특이사항 : 물(水)을 주제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유명 함

□ 고라정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추진과정

- 1980년대 일본에서는 전국적인 농지정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계기는 1989년에 실시된 후루사또 창생사업²⁾(고향재생사업)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
- 이 시기에 고라초 내의 13개 마을 전체에 ‘마을가꾸기위원회’ 라는 주민조직이 결성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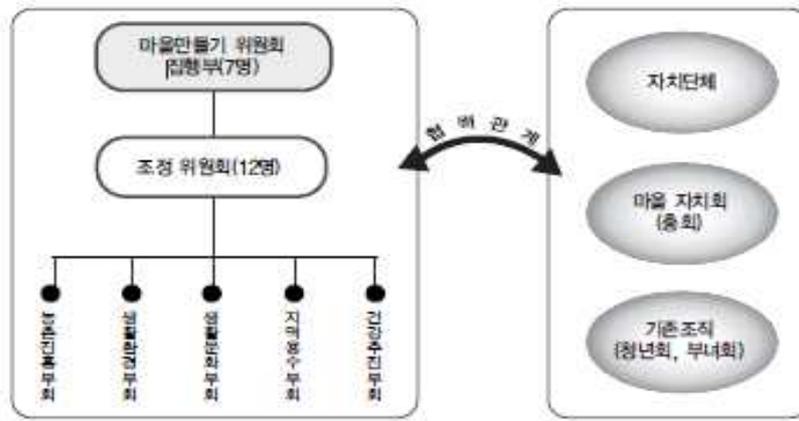
1) 초(町)는 일본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읍 또는 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2) 다케시타(竹下)내각 때 시행된 사업으로 일본의 모든 지자체(시정촌)에게 지역진흥자금 1억엔(약 12억원)을 교부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활성화사업을 추진함

- 이 후 이 주민조직은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됨
-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는 지역전통문화의보전·계승, 생활환경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 지역주민 스스로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 행정 측에서는 고라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의 초점을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보전과 정비’에 두어 각종사업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주민들이 살기좋은 환경 제공)
 - 그 가운데 하나가 각 마을에 결성된 ‘마을가꾸기위원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임.

□ ‘마을가꾸기위원회’의 구성

- 고라초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근본은 ‘마을가꾸기위원회’의 결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마을별로 조직 구성 방식에는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총괄역할을 하는 마을가꾸기위원회의 집행부가 있고, 그 아래 마을별 특성에 따라 농촌진흥부회, 생활문화부회, 환경부회, 건강추진부회, 지역용수부회라는 분과가 설치 됨
 - 농촌진흥부회 : 지역영농발전 위한 학습 및 실천 활동
 - 생활문화부회 : 생활환경개선을 비롯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 환경정비부회 : 마을공원 조성 및 정비
 - 건강증진부회 :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학습회 개최
 - 지역용수부회 : 마을 내에 흐르는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효율적 활용
 - 이러한 집행부와 5개 분과 사이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양자 간의 연락조정 역할을 담당함
- 인적구성 및 역할
 - 집행부는 위원장, 부위원장(3명), 간사, 서기, 회계로 구성
 - 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마을만들기 계획서를 작성하여 마을자치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 또한 각 분과는 부장, 부회장, 부원으로 약 10명씩 구성



<그림1> 고라초 기타오찌마을의 마을만들기위원회 조직도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운영의 기본원칙

마을가꾸기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설정함

① 마을에 있어서의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위상

-마을자치회(총회)의 부속조직이며 활동계획의 최종적 결정권은 마을자치회가 가진다

② 마을가꾸기위원회의 위원 선출 방법

-마을 주민이라며 누구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타인의 추천이든 자의에 의해서든 아무런 제약 없이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위원장은 마을 구장(區長)³⁾의 위촉에 의하며, 부위원장은 당년도 부구장(副區長)이 겸직한다.

③ 회의

○ 주요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조정위원회회의로 구분

-전체회의 : 모든 위원이 모여 각 분과별 활동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보고하며 새로운 마을만들기 활동의 제안도 한다. 전체회의는 월 1회 개최

-분과회의 : 각 분과의 위원들이 모여 활동 계획 및 실천을 위한 내용을 토의하며, 대체로 연 6회 정도 개최된다.

-조정위원회 : 각 분과의 활동상황을 파악·조정

④ 운영자금

-기본적인 운영자금은 고라초의 단독사업인 ‘지역만들기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충당
 ⇨ 국비 50% + 시정촌 예산 + 마을자부담

3) 여기서 말하는 구장(區長)은 우리나라의 이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단,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

-기타 마을자치회비로서 가구당 매월 5천엔(약 6만원)을 징수하여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현재는 유지비 명목으로 일부 거출)

□ 특이사항

① 마을 만들기의 주제를 지역에 풍부한 자원인 물(水)로 정하고, 물을 테마로 하는 사업 시행과 함께 옛 농촌 풍경을 뒤 살리고 반딧불도 복원하는 등 경관 및 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추진

②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가꾸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단, 운영비는 자체조달)

③ 20여년전 활발하게 활동했던 “마을가꾸기위원회”는 사업초기에 주도적인 리더그룹 이었던 50~60대들의 고령화로 현재 유지되고는 있지만, 초기와 같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일부 마을에서는 지금도 회비를 유지관리명목으로 거출하고 있는 실정

④ 인구감소 : 2009년 8,400여명 ⇨ 2014년 7,500명

⇨자연감소 50%, 젊은이들의 도심으로의 이주 50%(매년 100여명씩 감소 추세)

※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닌 마을경관 개선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하였으나, 일자리와 창출과 소득창출이 병행되지 못함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주하는 현상 발생

□ 시사점

① 지역의 자원인 물(水)을 활용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

② 단순히 농촌경관 등 환경개선에 머무르는 마을가꾸기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③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육성의 중요성 시사

② 오부세정(小布施町) 협동과 교류의 마을만들기

방문일시	설명자 : 쿠보타 타카오 副町長
2014. 11. 7. 09:40~13:00	<p>2014. 11. 7. AM. 쿠보타 小布施町 副町長</p> <p>久保田 隆 生</p> <p>〒381-0297 長野県上高井郡小布施町大字小布施1491番地2 T E L (026)247-3111 F A X (026)247-3113 E-mail: soumu@town.obuse.nagano.jp</p>

□ 오부세정의 개요

- 위 치 : 일본 나가노현 가미다카이군 오부세정(日本 長野県 上高井郡 小布施町)
-나가노현청에서 약 30여분거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
- 면 적 : 약 19.1km² (나가노현 77개 시·정·촌 중 가장 작은 면적)
- 인 구 : 약 1만 2,000명
- 관광객 : 약 120만명/년
- 특이사항
 -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고 비가 많이 내이는 내륙성 기후
 - 주요 농산물은 밤, 사과, 포도, 화훼류 등이다. 특히, 밤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며 600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음
- 마을만들기 경위
 - 오부세는 예부터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었으나, 에도시대 후기에는 오부세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큰 하천(千曲川)을 이용한 해운과 육로를 통한 운송의 중심지로 번창했음
 - 이에 따라 부농과 부상들이 다수 출현했고, 이러한 경제적 풍요는 많은 문인들과 유명한 화가들을 이곳으로 초청하게 되며 문화의 향기가 짙은 지금의 분위기를 형성됨

□ 오부세정의 마을 만들기 - 다섯 가지 포인트

- 관광객들로 거리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으로 풍요로운 현재의 오부세정을 만들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활동들이 있었다. 오부세정의 담당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포인트’ 로 요약하여 설명
 - 인구 정책

- 북제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관 가꾸기
- 지역산업·밤과자점의 활성화
- 마을정비사업[정병수경(町並修景)사업]
- 꽃이 있는 마을 만들기

가) 인구 정책

- 20세기 초반 오부세정의 인구는 대략 1만 1천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9천6백명까지로 줄었음
 - 이러한 결과는 1955년에 시작된 고도경제성장시기에 젊은 인구계층들이 대거 이촌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
-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자, 오부세정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공영주택 건설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택지조성과 분양 추진으로 상당수의 30대, 40대 연령층 인구가 유입
 - 당시 분양된 주택은 약 2천세대 정도였으며, 거의 모두 단독주택의 형태로 건축
 -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면 1980년에 오부세정의 인구는 1만 1천명을 넘어섰으며, 지금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 당시에 유입해 온 인구는 다양한 직업경력을 가진 계층이며,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이들이 바로 오늘날 오부세정의 마을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실천한 계층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오부세정 밖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전입해 옴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나) 호쿠사이(北齋)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관 가꾸기

- 1976년 오부세정에 남아있는 호쿠사이(北齋)의 육필화를 모아둔 ‘호쿠사이 미술관’ 건립
 - 오부세정과 깊은 인연을 가진 호쿠사이(北齋)를 기념하는 동시에 지역의 자랑거리를 잘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당시에는 ‘논 한가운데 미술관’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호쿠사이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야심찬 시도였음
- 호쿠사이 미술관을 건립한 후,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호쿠사이의 작품에 대한 붐이 일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부세 방문(연간 방문객 약 120만명)
 -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놀라는 것은 ‘이런 시골 마을에 어떻게 해서 호쿠사이처럼 유명한 화가의 미술관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짐
- 호쿠사이 미술관 건립은 오부세정이 관광의 중심지로 새로이 도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됨

-호쿠사이 미술관 주변에는 10개의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개관되었고, 호쿠사이와 다른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이 미술관들은 모두 오부세역에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오부세정 중심가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

다) 지역산업·밤과자점의 활성화

○ 오래 전부터 좋은 품질의 밤이 지역의 특산물인 오부세정에서는 밤과자를 만들었으며, 이 밤과자는 평판이 좋아 각지의 선물가게에 진열될 정도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오부세의 중요한 지역산업임

-현재, 오부세에서는 7개의 회사가 밤과자를 생산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오부세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오부세정에 밤과자 판매점이 늘어나고 있음

-어떤 밤과자 회사는 레스토랑을 함께 경영하기도 하며, 여성만을 타겟(target)으로 하는 밤케익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도 있음

-이처럼 오부세정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밤과자 산업이 점차 다각화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 되고 있음

○ 여러 개의 밤과자 회사들 중에서도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기업으로 ‘오부세도(小布施(堂))’을 들 수 있음

-오부세도는 밤소주와 밤양갱을 만드는 회사인데 단순히 밤과자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오부세정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였음

-오부세도는 밤소주를 만드는 양조장과 상품직매장 등을 지역의 전통적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지역주민과 방문자들에게 보여주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오부세의 거리를 구성하는 오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역시 전통적 형태로 개조한 후 적합한 용도의 지역 공동시설로 활용하도 함

-또한 방문자들을 위한 식당과 여관으로 만들어 수익사업을 겸하여 추진하고 있음

○ 오부세도는 오부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주도

-지역 상가연합회·농협 등과 더불어 오부세의 전통적 문화와 경관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며, 그것을 관광 상품화하여 방문자들의 구매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오부세 지역뿐만 아니라 오부세도를 홍보하는, 그야말로 상호 윈-윈(win-win)의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오부세도를 포함한 여러 밤과자 회사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의 90%를 공장들이 매입함으로써 밤의 판로를 안정화
- 둘째, 지역 주민들이 회사에서 파트타임노동자로 일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을 창출

라) 마을정비사업

- 마을정비 사업은 오부세정 전체를 아울러 경관을 가꾸기 위한 사업임
 - 오부세정이 관광객을 끌게 되자 중심가도 주변이 다소 난잡하게 발달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 대두(가령 주차장이 좁다거나 신축 건물에 가려진 주택들이 일조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경관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발생 등)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4년부터는 민간부문의 여러 주체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양보하여 아름다운 오부세정 거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
 - 특히 건축업과 조경업에 종사하는 몇몇 인물들이 선도적으로 활동
 - 이러한 움직임에 지역주민들 뿐 만 아니라, 오부세도 등과 같은 밤 가공회사들도 참여
- 호쿠사이 미술관 주변 16,000㎡ 이내 범위에서 거주공간과 상공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하자는 목표로, 100회 이상의 회의 진행
 - 연속되는 회의결과 2명의 개인, 3명의 사업자, 나중에 참여한 행정 등 6개의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어 1989년까지 5년간 마을정비 사업을 진행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의를 통해 ‘환경디자인 협력 기준’ 제정
 -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자기 집 내부는 근대화하더라도 외부는 오부세정에 살거나 방문하는 모든 이를 위해 전통적·향토적 방식으로 꾸민다’는 원칙을 정함
 - 환경디자인 협력 기준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주택 등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것이다. 지붕은 삼각형 모양으로 하되 기와를 엮고, 벽은 흙벽으로 하거나 적어도 흙색으로 칠하도록 규정
- 이 사업을 토대로 오부세정 행정기관이 경관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경관을 고려 한다’ 라는 인식을 오부세정의 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음
 - 오부세정을 찾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은 무려 60%에 달하며, 이러한 재방문율의 바탕에는 주민들이 나서고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오랫동안 가꾸어 온 아름다운 경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2006년까지 경관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협력 조례’ 였으나, 2007년부터는 2004년에 제정된 경관법에 맞추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강화됨

마) 꽃이 있는 마을 만들기

- 1990년대 초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1억 엔의 교부금이 제공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오부세정의 주민들 100명이 유럽으로 연수 실시

-연수의 목적은 ‘정원 가꾸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경관에 대한 인식이 고취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꽃이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논을 모은 결과임

- ‘꽃이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원은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들은 스스로 ‘개방정원(open garden)’을 가꾸기로 함
- 이런 활동을 통해 경관이 잘 가꾸어진 오부세정은 지역특산물인 밤나무를 활용한 나무벽돌로 정비된 보도블록, 아기자기하고 예쁜 쌈지공원들, 걸으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깨끗한 수로들을 볼 수 있음
- 게다가 개인주택임에도 130여 가구의 정원에는 ‘개방정원’이라는 팻말을 붙여놓아 누구나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특이사항

- ① 오부세정은 나가노현에서 가장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통폐합되지 않음
 - 1995년 일본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지자체 통폐합을 시행하였으나, 오부세정은 자생력이 있다고 인정받아 통폐합되지 않았음
- ② 오부세 마을의 새로운 농산물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시도
 - 오부세진흥공사 브랜드인 오부세야(小布施屋)를 통한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상품의 포장과 라벨 등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판매 부스의 리뉴얼을 통해 오부세산 농산물·상품 이미지 향상과 판로 확대
- ③ 호쿠사이(북제)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관 가꾸기
 -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핵심요소로 활용하여 경관과 지역산업을 연계시킴
- ④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산업을 관광과 연계시킴
 - 지역특산물인 밤과자를 만드는 공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여 마을가꾸기에 힘쓰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밤과자 등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함
- ⑤ 개방정원 등 경관 가꾸기를 통한 지역성 회복
 - ‘경관’이라는 수단을 통해 농업·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지역성’을 발견하여 이를 재생·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농촌지역과 풍경과의 상호의존성을 발견·강화하여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

-특히, 경관법을 제정해 주민 스스로 특색 있는 마을 꾸미고자 하였음

-민간부분의 여러 주체가 스스로 협력하고 양보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음

⑥ **이상한마라톤, 청년 체험프로그램 등 인구유입을 위한 지속적이고 새로운 시도**

-오부세 농촌마을을 풍경으로 하프 마라톤코스를 개발하여 오부세의 아름다운 환경을 알리고,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청년층의 취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컨퍼런스(2박3일 체험프로그램)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화 하고, 농촌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마을 만들기와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음

②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가 담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③ 자원이 있는 곳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내 문제가 되는 것을 활용하여 자원화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 하는바가 큼

④ 농촌이라는 공간에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히 눈에 띄게 화려한 경관구조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발상은 오히려 지역성을 더욱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음을 시사

② 일본 농업의 6차산업화

① 모쿠모쿠 수제농장(モクモク手作りファーム)	
방문일시	설명자 : 시게루 마츠나가 전무이사
2014. 11. 4. 10:00~13:00	<p>Shigeru Matsunaga <i>2014. 11. 4 (목)</i></p>  <p>常務取締役 松永 茂</p>  <p>株式会社 伊賀の里 モクモク手作りファーム Moku Moku Tezukuri Farm Co.,Ltd. 518-1392 三重県伊賀市西湯舟3609 3609 Nishiyubune,Iga-city,Mie,Japan 518-1392 TEL:0595(43)0909 FAX:0595(43)2100 http://www.moku-moku.com/ E-mail : info@moku-moku.com</p>

□ 개요

- 위치 : 미에현 이가시(三重縣 伊賀市)
-오사카와 나고야로부터 100km 떨어져 있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이가시의 인구는 10만 여명임
- 농장면적 : 14ha
- 방문객 : 50여만명/년
- 매출액 : 53억엔/년
- 고용현황 : 정직원은 150명 파트직원은 500명

□ 설립배경

- 1984년 5명의 양돈농가로 작하여 1987년 농업법인 “모쿠모쿠” 와 유한회사법인
“농촌사업연구소” 설립
-농협직원 출신 3명, 16곳의 양돈농가가 200만엔씩 출자하여 3,800만엔의
자금으로 첨가물을 일체 넣지 않은 햄과 소시지 가공공장 설립
※ 초기에는 소규모 양돈농가들의 규합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공공장 건립
- 공장설립 반년도 되지 않아 홍보부족으로 파산위기에 처하자 수제 비엔나
소시지 체험교실 운영으로 홍보활동을 시작
-지역의 학부모(소비자)가 체험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아이디어 착안
-체험교육이 구전을 통해 재미와 품질이 널리 알려지면서 소시지 인기 급상승

※ 먹을거리의 안전과 안심을 기본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의 판매와 '체험을 통한 집객(集客, 손님을 끌어모음)'과 '식(食)교육'을 접목시켜 크게 성공 하게 됨.

□ 농장의 개요

① 농사조합법인 이가의 고향 모쿠모쿠 수제농장

- 생산 : 소시지, 햄, 빵, 치즈, 과자, 맥주 등 개발
- 도농교류 : 다양한 체험과 숙박-식교육 병행
 - 팩토리파크 “모쿠모쿠수제농장” 운영
 - 오카에리빌리지 39채 돔형 오두막(숙박:200/일)
 - 80여 재배 품목 모두 체험 프로그램 운영가능

② 유한회사 농업법인 모쿠모쿠

- 워너체험교실, 몽계몽계 클럽이벤트 등의 전개
- 유통 : 인터넷 쇼핑, 자연클럽회원 통신판매, 직영점포 및 계약점포에 유통
- 클럽회원 : 전국 4만7천명 (※주로 미에현 거주)
 - ※ 회원은 가치를 공유하는 후원자이며 가격할인 등의 혜택은 없음

③ 주식회사 이가의 마을

- 레스토랑 경영 : 슬로우푸드, 지산지소, 소비자 식품교육
 -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한 점포와 건강 지향의 점포 등 전개
 -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레스토랑 7곳 운영[미에현(3), 현 외 동경(1), 나고야(1), 오사카(2)]

④ 주식회사 모쿠모쿠 네이처스

- 순환과 지역연계
 - 음식 찌꺼기의 순환 이용 시스템을 고안, 실시
 - 풍력발전을 통해 믹서기 동력을 사용
 -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음 (기부쿠폰 발행)
 - 자동판매기 설치하지 않음
 - 숙박시설에 에너지 사용량 계기판 설치

⑤ 유한회사 모쿠모쿠 농촌산업연구소

- 설립: 2005년, 자본금: 300만엔, 직원 10명
- 사업내용: 경영 컨설팅
 - 각종 강연회 · 세미나의 강사 수탁
 - 식육 시설 정비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

□ 농장의 운영

- 모쿠모쿠는 네이처클럽 회원을 모집하여 모쿠모쿠 수제농장 이용료 할인, 통신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한 회원이 4만7천 여명정도
-가입비 2천엔, 모쿠모쿠 전체 매출의 80%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현장 매장에서 판매됨
-년 4회 소식지 발송
- 입장료 : 1인당 500엔, 30명이상 단체입장 500엔(※2014년 11월 기준)
- 소시지 체험교실 인기부터 시작
-오전 오후 매일 2회 운영하는데, 하루 400명, 방학 때는 800명 참여
-소시지 체험교실의 인기가 각종 체험교실의 성공으로 확대되면서 모쿠모쿠 농장 전체의 기반이 됨
- 농학사(農學舎) :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하여 야채, 쌀, 과수 등 재배 강습회를 열며, 배우면서 직접 관리 수확하는 시스템
-150구획(1구획당 19.3평)
- 휴양시설
 - 3종류의 노천온천 시설 보유
 - 숙박시설 39동(최대 200명 수용), 원룸타입, 로프트 타입, 주방은 없음
 - 아침에 일어나 식사전에 밭에 나가거나 수확하거나, 우유짜기 체험을 하게 됨
 - 외부 가로등은 태양에너지, 숙박 일부전기는 풍력발전 활용(풍차 3대)
 - 엔터테인 : 뗏목 젓기, 자전거 대여, 놀이터 등
 - 결혼식장 운영
 -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승마장 운영
- 유제품 생산 유통
 - 유제품은 소 30마리에서 하루 600kg 집유
 - 유통기한이 4~5일 정도로 짧으나 냉장택배를 통한 꾸준한 소비층 보유
 - 저지(jersey)종 젓소의 우유를 프리미엄 컨셉으로 한정생산 판매
 - 소목장은 숙박시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새벽 6시30분에 숙소에서 셔틀버스로 운행

□ 특이사항

- ① 가격결정 : 생산자가 구매자와 직거래할 경우 가격 결정 및 조절 가능
- ② 맛있는 햄 : 처음에는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생각을 판다는 사고전환 후 판매증가, 수제햄 제조방법 수업시 연간 10만명 참관(수업 참관자가 명절 등 선물을 할 경우 모쿠모쿠 제품을 사용)
- ③ 회원 소식지 발행 : 연간 4만7천명에게 발송(통시판매 주 고객), **4회 발송 -회원의 대부분은 미에현 거주자로 구성됨**
- ④ **연간 53억엔 수입** : 생산, 가공, 판매(통신, 레스토랑 사업)
 - 수익 90%이상 직판장, 기타 10%정도 슈퍼마켓 판매
- ⑤ 체제형 숙박시설(빌리지 39칸) : 연 2만8천명 숙박
 - 사료주기, 우유먹이기, 버섯수확 등 1일체험 의무
 - 80종의 먹거리 교육과정이 있음
 예)딸기농장체험시 체험후 팩에 가득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물건의 가치 전달에 중점을 둠
- ⑥ 외부음식점 : 레스토랑(도쿄, 오사카,나고야)에서는 반드시 야채, 소시지 등 농장 생산물을 이용 및 판매(**7개소에서 연간 총 매출 4억 엔**)
- ⑦ 풍력발전으로 농장의 야채믹스 기계 사용 : 생각의 변화
- ⑧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 ⑨ 농업은 소비자에게 의미가 전달되어야 성공 가능
- ⑩ 수제소시지 가격은 대기업 제품의 1.23배 수준
- ⑪ 보조금 수혜현황 : 가공시설 건축비의 40~50% 지원 받음
- ⑫ 지역공헌을 위한 노력 : 지역주민 고용(일자리 제공), 지역주민에 한하여 온천욕장 할인, 농산물판매(직매장)
- ⑬ 택배발송 건수 : 연간 14만건 정도

□ 시사점

- ①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만이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 유통을 아는 전문경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농가들을 규합함으로써 시작하였지만,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철저한 분업화와 전문 경영체계 도입
 - 정직원 150여명 중 90여명이 회사의 지분에 직접 출자하여 급여를 공개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있음

② 먹을거리의 안전과 안심을 기본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을 팔고함.

- '집객(集客, 손님을 끌어모음)'과 '식(食)교육'을 접목시킨것이 크게 성공한 배경임.

-안전·안심 : 집객은 원나 소시지 체험으로 사람을 끌어 모아 식(食) 교육과 접목

③ 전문화되고, 기업화됨으로 인한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이 저하 현상 대두

-양돈 농가 중심의 6차산업화 농장에서 규모화 되고 전문화됨으로 인해, 소금사업까지 진출하는 등 지역 중심이 아닌 기업화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② 명보 레이디스(기후현) 토마토케찹가공회사

방문일시	설명자 : 미요코 수미 대표
2014. 11. 5. 12:50~13:00	 <p>2014. 11. 5 株式会社 明宝レディース</p> <p>代表取締役 鷺見 美代子 Miyoko Sumi</p> <p>〒501-4302 岐阜県郡上市明宝寒水268-1 TEL(0575)87-2388 FAX(0575)87-2703 http://www.meiho-ladies.co.jp</p>

□ 지역개요

- 구조시[郡上]는 기후현[岐阜県] 중부에 있다. 히다고원의 남부에 위치한 산악지대이고 나가라강[長良川] 유역에 대부분의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아시쿠라산, 덴구산, 다이니치산 등 1500m가 넘는 높은 산들이 많음

□ 명보레이디스 개요

- 위치 : 岐阜県 郡上市 明宝寒水268-1
- 자본금 : 1억엔(군조시청 전액 출자, 토지 자부담)
- 연매출 : 7천5백만엔
- 기후현 구조시 메이호 지구(구 메이호촌)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1980년대후반부터 제3섹터에 의한 신산업창출에 노력했고 1960년대부터 활동해온 각 지역의 생활개선그룹의 농산가공활동을 기초로 1992년 설립되어 임직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됨

- 명보레이디스는 여성27명이 회사를 설립하여 공급과잉이 된 토마토에 대한 고민을 하던중에서 케첩을 제조하고 야채를 가공하여 관내 스키장과 온천 내의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음

□ 사업내용

-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여름, 가을의 완숙 생식용)의 규격외품을 사용한 수제토마토 케첩의 제조·판매(브랜드명 '명보토마토케첩'으로 연간 12만병)하고 있음
 - 계약재배가 아닌, 지역 농협에서 잉여(비과) 토마토를 구매하여 가공
- 지역원료와 전통방법을 고집하는 특산품제조판매, 또한 인근 미치노에키와스키장, 온천시설에 직판점을 설치해 소비자와의 대면판매를 통해 팔리는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지역 내 유사한 회사인 '명보특산물가공주식회사'에서 제조하는 '명보 햄' 등의 상품군과 함께 명보산 농산가공품은 대형백화점 등에서 선물용 상품으로 인기가 있음

□ 특이사항

- ① “구조시”에서 100% 출자하여 건축과 설비를 부담하고 운영은 여성농업인 그룹에서 담당(사용료 부담)
 - 초기 구조시에서 1억엔(약10억)을 투자하여 건축 및 설비를 구축해 줌(땅은 자부담)
 - 수년간 임대료 명목으로 갚아 오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임대료 내지 않고 있고, 시설에 대한 권리는 “구조시”의 소유로 되어 있음
 - 현재 운영비 등 보조는 전무한 실정(수리도 자부담으로 시행)
 - ※레스토랑도 겸하여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운영 안함.**
 - 연간매출이 2010년 기준 **9천5백만엔**에 달하였으나, 2014년 현재 매출액이 7천5백만엔으로 감소(※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지역으로 지나가는 손님 감소로 미찌노에끼 매출 감소)
- ② 종업원이 모두 여성이며, 2010년 13명에서 2014년 현재 11명으로 감소
- ③ 연간 토마토 원료 사용량 ; 80톤(인근농협에서 잉여비과 중심 구매하기 때문에 계약재배 필요 없음)
- ④ 토마토케첩, 순무, 산마늘 등 계절별 제품 생산으로 연중 가동을 위한 노력
- ⑤ 주요 판매경로는 인근에 유명한 햄 가공회사인 “명보 햄”에서 햄과 함께

구성 상품으로 판매 약 40% 정도 판매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근 직판장에서 판매

- ⑥ 국내 농촌의 현실과 유사하게 주변에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발생
- ⑦ 초기에 30명의 여성리더들로 시작했지만 현재 11명만 남아 운영하고 있음.
- ⑧ 학생들의 공장 견학과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는 찾아가는 체험 실시

□ 시사점

- ①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방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쇠퇴해가는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하나, 공동체 운영의 어려움을 타계할 방안 마련 시급
- ② 두레기업간 연계 또는 지역 식품기업 등과 연계를 통한 구성 상품 개발로 세트상품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③ 오야키무라(나가노현)/주식회사 오가와노쇼	
방문일시	설명자 : 곤다 키미타카 대표
2014. 11. 6. 13:30~15:00	<p>2014. 11. 6 방문 <small>第三セクター方式による新しい村づくり事業</small></p> <p>代表取締役 権田 公隆 </p> <p>株式会社 小川の庄 〒381-3302 長野県上水内郡小川村大字高府 2876 ☎026-269-3760 FAX:026-269-3763 E-mail:k-gonda@ogawanosho.com URL:http://www.ogawanosho.com/</p> <p>花と味街道 美しい村づくりを目指して…土と人との新しい出会い。</p>

□ 지역특성 및 설립배경

- 나가노현의 오가와촌은 산간지대에 있는 인구 2800여명의 작은 마을
 - 최근 인근의 소규모 자치체들이 나가노시에 합병되었지만 오가와촌은 합병하지 않음
 - 급경사 밭이 대부분인 영세한 농업구조로, 과거에 양잠이 성했으나, 수입개방으로 가격이 떨어져 양잠이 쇠퇴하고 젊은이들의 이촌이 급증하여 노인층만 남게 됨
 - 지역의 특성상 쌀농사를 지을 수 없어 주민들이 보리농사, 메밀농사, 콩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는 열악한 환경의 마을

- 지역에 유치하였던 공장들이 엔고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다시 타격을 받고, 현재 도농교류와 귀농촉진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big land 오가와, 고향땅 오가와, 별과 綠의 romantopia 등 산촌체험교류를 위한 공공시설과 주택용지 조성 등의 성과는 충분하지 않음
-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나가노 현의 대표적 음식인 ‘오야끼’ 를 중심으로 한 식품가공판매와 음식점을 설립함
 - 오야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콩과 밀)을 껍질로 하고 속은 야채와 된장을 활용한 절임류로 만든 일종의 만두로서 구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찌기도 함
- ‘오가와노쇼’ 설립은 1986년이지만 근원은 30년 전에서 찾을 수 있음
 - 1950년대에는 장남이 농촌에 남아 가업을 잇는 일이 보통이었고, 7인의 창업자를 포함한 당시 20대들은 청년단 ‘산올림회’ 에 가입하여 산촌지역에서 기인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을 주제로 열심히 공부함
 - 그 중에 나온 결론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수가 없으니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붙여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음
 - 그러나,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이들 젊은이들은 농사를 그만두고 현금수입을 찾아 도시로 흩어짐
 - 그러면서도 이들은 가공공장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서로 의견과 소식을 교환함
 - 1980년대에 자치체와 농협에서 ‘고행시골사업’ 으로 가공시설 건설을 검토할 때, 7명의그룹은 스스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협의
 - 특히 리더인 곤다이치로(權田一郎)는 고졸 후 미국농장의 유학과 귀국후 자치체 공무원으로 일한 후 절임류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가공기술과 판매 방법을 배우고 대표이사까지 되어 절임류의 프로로서 새로운 가공공장의 설립에 대단히 유효한 경험이 되었음
 - 식료품 납품업을 하면서 고향의 맛 오야끼를 선물로 준 것이 호응이 얻고 만들어 판매하면 좋겠다는 권유로 사업 시작
- 1986년에 당시 우체국 부국장, 현 사회복지협의회 과장, 민간회사 근무자 등 48~54세의 7명이 동시에 퇴직하여 회사를 차림. 처음에 자본금은 2천만엔으로 하고 7명의 이사가 35%, 농협이 15%, 곤다씨가 근무한 절임회사가 35%를 출자한 제3섹타방식 도입
- ※현재 대표인 곤다씨의 할아버지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공장과 식당, 판매장

으로 사용하였고, 아버지로 곤다씨가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음

□ 회사 운영

○ 가능한 한 초기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업 시작

-양잠공동사육장의 빈 시설을 농협에서 월 20만엔에 차용하고 용기는 절임제조회사에서 빌렸으며, 오야기무라는 곤다씨의 생가 임대

- 신규시설 도입자금은 7명의 공동보증으로 농협에서 차용하였으나, 가능한 한 조기 변제하고 그 다음 차입을 계획

○ 제품 개발과 판매방법은 회사설립 3년 전부터 검토함

-상품은 도시에는 없는 것, 도시민을 낮게 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여 우선 먹을 것 중에서 대대로 전해내려 온 오가와손의 음식을 발굴하자고자 하여 소박한 시골 음식인 오야끼를 채택함

-논이 없는 오가와손에서 3일에 한번은 저녁식사로 오야끼를 이로리(囲爐裏)에서 구워먹었음. 이는 빈곤의 대명사였는데, 근대화 중에 1970년대가 되면 이로리도 오야끼도 사라지게 되었고, 오야끼는 도시로 나간 출향민들의 추억의 맛이 됨

-먹는 것도 당시 드라이브 인이 유행하였지만 오야끼는 편리한 곳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오가와무라의 분위기 있는 곳에 건설하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사업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마을 내에서 노령자를 고용하는 것임

-오야끼는 할머니들만이 만들 수 있음. 만두피와 속 모두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음

-할머니들이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게(어느 정도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게) 공장도 7개 마을에 분산해서 소규모로 세웠으나, 현재는 4개소로 줄었음

※ 오야끼촌은 오야끼 만두의 발상지로서 찾아오는 방문객, 체험객 판매용

으로 1일 500여개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각 지역의 가공장에서 생산됨

-70여명의 종사자 중 1/2은 60세 이상이며 대부분 상근임(연 220일, 1일 8시간 근무)

○ 원재료 농산물 구입으로 농업진흥에 기여하는 것이 다음 목적임

-원재료는 촌내의 농가에서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농산물이 많으며, 지역 내 농가의 노령화로 점차 역내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

-촌내의 농가는 700호 정도인데 이중 100호가 회원으로 오가와노쇼에 농산물을 납품함

※구입하는 품목은 곡물과 각종 야채로서 값은 사전에 정하고 농가가 출하하는 모든 량을

다 구매하는 것이 원칙임(계약재배).

- 전통 식당 ‘오가와무라’의 가공식품의 판매와 체험활동
 - 오야끼와 쓰께모노 판매는 50%는 생협을 통한 택배로 판매하고, 50%는 자체 통신판매와 방문 판매임
- 연간 판매액은 7억엔으로 재정적 자립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일본의 다른 CB⁴⁾와는 달리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민의 현지 고용과 농산물구입을 통해 社會的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오야끼촌까지 찾아오는 방문객 수는 1년에 약 5만명임(2013년 약 4만명) 매년 상승하고 있음
 - 1년에 30팀 정도 견학, 대부분 일본 내 행정관청에서 공무원들이 방문하고 한국에서는 매년 약 2회 정도 방문

□ 특이사항

- ① 마을 내 고령자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② 계약재배를 통해 마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입
- ③ 최근 10년간 매출신장세는 급성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1998년 동계올림픽 때 가장 높은 매출을 나타내었으며, 처음부터 흑자 구조 였음)
- ④ 사업초기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았으며, 도로정비, 수도, 전기와 같은 주변 인프라 지원을 선행적으로 지원하여 여건을 마련해 줌
- ⑤ 사업초기 7인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됨
- ⑥ 사업 시작 당시 오가와촌의 인구는 4,500명에서 현재 2,800명(12백가구), 초, 중학교 각 1개씩 그리고 농업이 주업이며, 회사는 총 20여개 있음
- ⑦ 초창기 홍보는 창업자 7명이 각자 동경, 오사카의 백화점을 방문하여 구매자들에게 시식과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실패하고 답답한 마음에 무조건 많이 만들어 나가노현청 신문사, 방송국에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식이 뉴스 화 되면서 신문에 보도되고, 이를 계기로 판매되기 시작함
 - 특히, 1989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일본식품엑스포에 참가하여 미국의 언론에 보도됨으로 역으로 일본 내에서 더욱 홍보가 됨
- ⑧ 주요 매출경로는 농협과 생협이며, 기타 도내 선물가게, 마을 내 직매장, 선광사

4) Community Business

직매장 그리고 통신판매 등의 순서임

- ⑨ 체험은 오야끼 굽는 체험이 있으며, 2개 굽는데 540엔이고, 연간 체험 객은 3천명정도 임-예약보다는 방문 객중에 즉석에서 신청하며, 초등학생들의 단체 식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함
- ⑩ 앞으로 비전은 누구나가 좋아하는 맛있는 오야끼를 생산하는 것이며, 모든 원료를 지역 산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

□ 시사점

- ① 농촌의 잊혀져가는 음식,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인재 양성의 필요성
- ② 지역농산물의 활용과 농촌의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6차산업화의 핵심가치이다
- ③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보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③ 일본 농업의 농업회의소

□ 일본 전국농업회의소

□ 전국농업회의소의 설치 및 조직 구성

-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과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농업 생산력의 향상 및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54년 설립되었음
 - 농지개혁 이후에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었던 농지위원회, 농업조정위원회, 농업개량위원회가 1951년 통합되어서 농업위원회가 되었으며, 당시 도도부현에는 농업위원회, 전국 단위에는 전국농업위원회협의회가 있었음
 - 전국 단위의 농정조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국농업회의소가 1954년에 설치 되었으며, 도도부현 농업위원회는 농업회의로 바뀌게 되었음. 시정촌 단위는 농업위원회로 지속됨
 - 그 당시 전후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를 통합해야 하고, 농가 지도를 위해서 농정지도단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단체

개편 시 농협계통(당시 산업조합), 농업회의소가 정치적인 문제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된 채로 지속되고 있음

○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은 전국농업회의소, 현농업회의, 시정촌농업위원회 등 3 단계조직으로 되어 있음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으로 구성되며 평균적으로 21명 수준임

-현 농업회의는 농업위원회장과 현 단위의 농업단체로 구성됨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회의장과 전국 단위의 농업 관계 단체로 구성됨

○ 전국농업회의소 조직은 총무부, 농정대책부, 농지·구조대책부, 신규 취농상담 센터, 신문사업 본부, 출판부로 구성되어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와 역할

○ 전국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사업)는 법률과 정관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음

-농업·농민의 의견에 관한 의견 공표, 행정청에 건의, 자문에 대한 답신

-농민에 대한 정보 제공

-농업과 농민에 대한 조사와 연구

-농업회의에 관련된 지도 및 연락 업무

-그 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전국농업회의소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첫째, 농민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림수산성 장관의 자문에 대해 농민의 의견을 반영한 답신을 하였고, 이후 농지정책, 농지유동화 정책, 농민연금 정책 등으로 반영되었음

-둘째, 후계자 확보·육성과 경영개선 대책을 하고 있음. 농외로부터 취농 희망자에 대한 농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취농자의 확보, 농업경영의 법인화추진, 가족 경영 협정의 체결 촉진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셋째, 우량농지의 확보와 후계자의 농지이용집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 농지의 무단 전용방지, 농업위원에 의한 농지 이용 집적의 알선, 상담 등의 추진활동을 하는 것으로 우량 농지의 확보, 농지 이용권 설정 증가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넷째, 농업 정책의 정보제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농업·농지 정책의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사업, 도서 출판사업을 실시하여 농업 정책의 개발에 역할을 하는 것임

-다섯째, 농지 경영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농지가격, 소작료 등 기초

적인 데이터에 대해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조사를 지속해 오고 있음

○ 농민의 의견을 정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정농업자 의견교환회, 농업위원회 회장단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의견을 모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요구를 듣고 있으며, 정책대안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인정농업자 의견교환회를 개최하고 있음. 또한 농업위원회 회장단대회를 1년에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정부에 요망자료로 제출하고 있음

-2000년도를 끝으로 농림수산성 장관의 자문에 답신을 하는 역할은 마무리되었음. 법령상 자문에 대한 답신은 농업회의소의 역할이고 다른 기관에서는 자문을 하지 않았었음. 2001년부터 자문에 대한 답신이 아니라 회장단대회가 끝나고 관련 장관, 관련 부처·청에 직접 요청을 하고 있음

○ 후계자 확보·육성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신규 취농 인재대책과 가족경영 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신규 취농 인재대책은 최근 업무 변천과 관련된 부분임. 예전에는 농가의 후계자 자체가 농업인의 후세대였는데, 지금은 비농가 출신이 많음. 비농가 출신의 신규 취농을 원하는 사람이나 농업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등을 하고 있음. 이 사업은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음

-신규 취농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로는 농업회의소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단위에서는 농업회의 또는 농업공사, 청소년 육성센터, 보급센터 등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가족경영의 근대화 측면에서 배우자 경영자 후계자가 가족이지만 급여, 시간, 노동시간 등에 대해 계약 협정을 맺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도사업을 하고 있음

-농업자 연금제도 관련하여 가입을 권유하거나 지도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음

○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지법에 기초한 허·인가 업무와 관련한 업무이며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민이 팔고자 하는 것에 허가가 필요한데 농업위원회가 허·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농업회의소는 하부조직이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에서 수행하는 여러 업무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하부조직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가 성격상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간접적인 정보제공, 위탁 업무 순임

-간접적인 정보 제공은 출판사업, 신문발행 등이 있음

-위탁 사무는 예를 들어 최근 “농의 고용사업” 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업생산 법인이 젊은 사람을 고용했을 때 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성격상으로 보면 업무 중요도는 농지 관련 정보제공, 간접적 정보제공, 위탁사무 순 이지만 예산으로 보면 위탁사업의 비중이 가장 큼

□ 전국농업회의소와 타 조직과의 관계 및 농정에의 역할

○ 농업회의소는 농림수산성이 기획하는 농정의 일부를 실시하는 주체로서 고유 업무는 현장에 관련된 시정촌의 지도사업, 정보제공이며, 위탁업무는 토지개발 지도업무 등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과 관련됨

-일본에는 농정조직이 3단계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체계 하에서 시책의 기본 이념은 전달되기 쉽지만, 농지매매, 권리이동, 심사내용 등에 관한 내용의 전달은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전국회의소에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심사기준을 제공하며 개별 응답을 제공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의 농정에의 역할은 농지 및 경작자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농정조직과의 차별성을 갖는 측면임.

-전후 농지개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가 생겨났음. 농지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농지위원회가 농업위원회로 바뀌면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위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농업회의소가 생겨난 것임

-따라서 기본적으로 농지 관련된 사항을 주축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경작자 확보 측면의 역할을 하고 있음. 즉 농지와 경작자의 확보육성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의 정체성이자 다른 농정 추진주체와의 차별성임

○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지 측면에서 볼 때 농업계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관임

-행정루트를 통해서는 농가의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데, 농업위원회 위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이들이 연합이 되어 농업회의를 이루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되어 농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음

- 농업회의소는 국가로부터 출자를 받았으나 업무운영비 지원은 일체 없는 민간단체임
 - 다만 위탁된 국고보조금 국가가 낸 사업을 응모해서 당선인 되어서 실시함. 한편 상대를 결정해서 하는 사업은 농업회의소가 받아오기도 함
 - 2008~09년은 긴급고용대책 농의 고용 관련 특별기금을 낙찰 받았고 이를 적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 예산
- 2010년도(평성 22년) 농업회의소 일반회계는 약 484백만 엔임.
 - 일반회계는 부과금 168백만 엔, 보조금 138백만 엔, 위탁금 82백만 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과금은 전국농업회의소의 회원인 현농업회의, 전국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의 회비임.
- 국고보조금으로는 통계사업, 농지정보 관련 인터넷 사업, 연수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지가격조사, 노임조사 등 통계사업은 국고보조로 추진하며 농업회의소에서 30년 동안 가격을 조사하고 있음
 - 농지에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농지 판매자와 관련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로 진행하고 있음
 - 연수활동 역시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농업회의, 농업위원들의 연수활동이나 농업위원들의 활동비 지급, 연수회 등이 있음
- 신문발행과 관련된 예산으로 특별회계가 있으며 2010년도 12억 엔이 배정되어 있고, 출판사업은 4억 5천만 엔 규모임
- 그 외 기금사업으로는 신규취농사업, 농의 고용사업 등이 있으며 이는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3. 현(縣) 농업회의

- 현 농업회의의 설치 및 조직 구성
- 현 농업회의는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도도부현 내에 설립된 농업단체임
- 현 농업회의는 시정촌 농업위원회 회장과 그 외 농업계 단체의 회장 및 농업

전문가 등이 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업위원회 회장 각 1인

-도도부현 농협중앙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 1인

-도도부현 농업공제조합연합회 이사 1인

-도도부현 구역 또는 그 일부 구역의 농협 및 농협연합회의 이사 약간명

-농업의 개량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이사 약간명

-학식경험자 약간명

○ 현 농업회의에서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총회는 1년에 두 번 개최하고 있으며, 예산의 보정에 관련된 내용, 직원의 보수 관련 내용,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편성, 거출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방법에 대한 내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차입금의 최고 한도에 대한 내용, 상임위원회의 이동 관련된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함

-상임회의원 회의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해 매월 현지사의 자문에 대한 답신을 하는 역할을 함. 회의원은 농업위원회 회장 중에서 15명과 농업관련단체, 현 의회, 시정촌의회의 대표 11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 농업회의의 주요 업무와 역할

○ 현 농업회의의 업무는 농업위원회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자문 기관으로서 행정을 보완하는 업무(전속적 업무)와 농업 및 농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비전속적 업무)로 구분됨

○ 전속적 업무는 농지법 등 법령에 의한 것으로 행정 업무를 농업회의가 보완 하는 것임

-상임회의원 회의에 관한 업무, 농업위원회운영사무에 관한 업무, 본 회계예산집행 및 거출금에 관한 업무, 농지활용추진(경영기반강화법)에 관한 업무, 특수법인 대부 사업에 관한 업무, 총회 및 농업회의의 운영 회의에 관한 업무, 법인화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경작포기지대책협의회에 관한 업무, 농정대책에 관한 업무 등이 있음

-예를 들어 농지 전용 시 현 지사의 허가⁵⁾가 필요하며, 허가하는 경우 농업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경작포기지협의회와 관련하여 각 지역마다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후계자들에게 토지가 갈수 있게끔 하는 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5) 농지 전용면적이 4ha 이하의 경우 도도부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이상은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다.

-협의회는 시·정·촌 농정과 또는 농협에 설치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시정촌, JA 등 임. 그러나 경작포기지가 최근 5년간 급속하게 생겼으므로 대책을 세워야 했고 이는 실제로 사후대책 측면이 있음

○ 비전속적 업무는 농업 및 농업자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업무로 현 내의 농업·농민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공표하거나 행정청에 건의⁶⁾ 또는 자문에 답신하는 업무임.

-그 외에 농업·농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 농업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과 연수, 시정촌 농업위원회에 대한 조인과 협력, 기타 부대업무 등이 있음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는 신규 취농 희망자와 고용농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농업회의와 농업회의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 개최, 법인화 지원 사업, 현 내 농업경영연구회에 관한 사무 등이 있음

□ 현 농업회의와 타 조직과의 관계

○ 현 농업회의는 계통 조직 내에서 전국농업회의소의 방침을 따르면서 지역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의 필요성이 존재함.

-전국농업회의소는 수적인 측면에서 농업위원회를 한 번에 지도하기 어렵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 농업회의는 전국농업회의소와 시·정·촌 농업위원회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업무는 농업회의소가 농업회의를 따르게 되어 있으나, 임의업무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크지 않음

○ 농업 관련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보면, 현 농업회의는 전국농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농지와 관련하여 대표성이 있음.

-현 내에서 행정은 현청이고, 농업 관련 단체로는 농협이 가장 규모가 큼. 그러나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이 가장 대표성이 있음.

4. 시/정/촌(市/町/村) 농업위원회

□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구성

○ 농업위원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선거위원과 선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임

6) 농업회의에서 농업위원회 요망을 정리하여 현지사에게 요망서를 제출하고 있다.

-선거위원 수는 각 시의 농지면적에 의해 결정되며, 선임위원은 농협 이사 1인, 농업공제조합의 이사 1인, 토지개량구의 이사, 학식경험자 4인 이내 등으로 구성됨

○ 농업위원회는 농지부회와 농정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구 내에 심의회를 두고 있음

-부회는 선거위원이 21명 이상인 농업위원회에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무는 아니며, 한편 심의회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자체 농업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님

-농지부회는 농지전용, 임차전용, 소유권 이전 등을 담당하고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한편 농정부회는 정책업무, 유휴농지 관련된 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농지부회에 속하지 않는 위원들이 속함

○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음

-선거구 정수는 선거구의 유권자수에 의해 정해지며 정원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선거구를 정해둔 이유는 한 곳에 집중되어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유권자는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유권자 자격은 10아르(are) 이상 경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자 또는 60일 이상 경작에 종사하고 있는 동거 가족임

-유권자 자격을 가진 자가 신청을 하면 유권자가 됨. 매년 여름에 농지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각 농가의 경작 면적, 경작 시간을 조사하고 있고, 그때 유권자 신청을 함께 받고 있음

○ 농업위원회 사무국은 농지조정과 농업진흥과로 나뉨

-사무국의 직원 수는 20명이고, 농지조정과에서 농지법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농업진흥과에서 그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역할

○ 농업위원회는 법령업무, 임의업무, 그 외 의견 공표 및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령 업무로는 농지법에 의거한 농지 등의 이용 관계의 조정 및 자작농의 창설 유지에 관한 업무, 토지개량법 등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에 관한 업무, 기타

법령에 의한 업무가 있음

-임의 업무로는 농지 등의 이용관계에 대한 알선 및 쟁의 방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알선, 농업·농촌에 관한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시, 농업생산 농업경영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있음

-그 외에 농업위원회는 농업과 농민에 관한 사항의 의견 공표, 행정청에 건의, 자문에 대한 답신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실제 농업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농지조정과의 업무, 즉 허·인가 업무, 상속세 관련 증명서 발급, 농지 이용 관련 업무 등이 있으며, 토지 관련 신청 업무, 자료 수집, 선거구 심의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서 사이타마시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 취농자 및 귀농자 농지임대 원조, 농기계 지원사업,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보조사업 등을 하고 있음

○ 농지매매 신청이 있을 때 신청서 안에 농지가격 등을 조사하고 있음.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보내 작성하던 것은 없어졌고, 대신 임차료와 관련해서 경영강화촉진법에 의해 매년 농지가격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가족협정 및 농업자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에서 가족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인을 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은 미미한 편이며, 농업자 연금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사한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연금에 가입하는 농가는 거의 없음.

○ 유휴농지 문제가 심각하여 농업위원회에서는 유휴농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규모는 450만 ha에 이룸

-농지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농지세가 부과됨. 이용에 대한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 권고조치가 생겨났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음. 또한 현이 그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음

○ 농지기본대장 전산화 사업은 각 시정촌마다 수작업으로 기장하는 곳, 전산화 등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추진되는 사업임.

-사이타마시는 경영자가 품목 정보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용하게 될 것임.

○ 건의, 요청, 요망 활동은 매년 거의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있음.

-현에 대한 요망은 농업회의로부터 제출이 되고, 시에 대한 건의나 요청은 농업위원회 회장과 농정부회장이 하고 있음. 현 관련 요청은 활발하지 않고, 시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있음

-요망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작하도록 해 달라거나, 이와 관련한 농지정비에 관한 내용이 많으며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요구도 있음.

□ 시·정·촌 농업위원회와 타 조직과의 관계

○ 현 농업회의와는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현 농업회의의 의견을 받아야 하므로 매월 회의해야 하고 이것이 교류의 대부분임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은 3단계로 되어 있지만 업무 측면에서는 거의 교류가 없는 편임

○ 농업계의 대표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토지개량구, 행정조직 등이 대표성을 띠기도 하는데, 최근 농업위원회는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가노현 농업회의	
방문일시	설명자 : 미야지마 아키히로 사무국장
2014. 11. 7. 13:30~14:50	<p>2014. 11. 7. PM</p> <p>長野県農業会議 Nagano Prefectural Chamber of Agriculture</p> <p>事務局 長</p> <p>宮島 明博 miyajima akihiro</p> <p>〒380-8570 長野市大字南長野字幅下692-2 (県庁東庁舎)</p> <p>TEL 026-234-6871 FAX 026-235-2454 E-mail : 24miyajima@nca.or.jp http://www.naganokaigi.com/</p> <p style="text-align: right;"><i>宮島</i></p>

○ 나가노현 농업회의 조직

회장 1人 부회장 2人		회 의 원 89人	상임회위원 27人
	감사위원 2人	1호 시·정·촌 농업위원 77人 2호 농협중앙회장 1人 3호 농업공제연합회장 1人 4호 각농협연합회이사 2人 (信連, 厚生連) 5호 농업 개발공사, 지사 改良連, 담당자육성 3人 기금이사 등 6호 학식경험자(学識経験者) 5人	互選 1호 15人(상근) 2호 1人(비상근) 3호 1人(비상근) 4호 2人(비상근) 5호 3人(비상근) 6호 5人(비상근)
事務局(12人) 〃 사무국장 〃 총무/정보부(3인) 〃 농정/농지부(4인) 〃 담당자(농업후계자)/ 경영 연금부(4인)	○ 사무국 : 12명 사무국장(미야즈마 상) ○ 사무국 예산 : 약 10억원 -인건비 등 : 6억원 , 사업비 : 4억원 ○ 농업위원은 3년에 1번에 선거에 의해 선출 ○ 총회 는 1년에 2회 실시(3월 예산편성/ ○ 상임위원회 회의 : 매달 15일 개최		

○ 주요업무

① 농지법 등에 근거하여 지사 등의 자문에 대한 답신<농업회의 핵심업무>

▷농지를 농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에 자문에 응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임

② 농업위원, 농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연수활동 지원

-새롭게 선출된 농업위원, 사무국직원 등의 연수를 통해 향후 담당 할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

③ 농정대책

-농정대책(식료·농업·농촌정책) 관련된 국가, 지방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 정리

④ 농지대책

-농지이용에 관한 집적촉진활동

-유휴농지 해소대책

※참고 : 나가현에는 10여만ha의 농지가 있는데 농민수가 약11만 밖에 안 됨. 따라서 농민1인당 1ha의 농지밖에 안되는데 적은농지로는 먹고살기 힘들다. 그런데 여기에 유휴농지까지 생긴다면 경지면적은 더 줄게 됨.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령화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찾아 중계역할로 경작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업무중 하나이다(순찰을 통해 유휴지를 찾아내는 역할도 하고 있음).

-농지대출, 농지대출 정보공시<농지정보관리센터>

-농지대장 정비 및 전산화, 지도 정보화의 추진

-농지관계 제도의 상담

⑤ 담당자(농업후계자), 경영확립대책 지원

-인정농업자 등 담당자의 확보육성

-농업법인 등의 육성지원

-신규 취농 상담활동 : 동경, 오사카 등에 찾아가 귀농 홍보업무 담당

-경영자단체 등 지원활동 실시

※법인성격의 규모화된 농업자들이 도청에서 지원하는 농업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교육비를 지원(국가보조금 97,000엔)하는데 이를 추진하거나 중계하는 역할 담당

-양계 · 양봉업자들의 지원활동 담당

⑥ 농업자연금제도의 농업위원회에 대한 지도 및 상담활동

-가입조건 연간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자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⑦ 정보활동대책의 추진

-전국농업신문 · 국농업도서 보급 추진

※ 월 구독료 600엔 / 나가노현 구독자 약 8,000명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활동

□ 특이사항

① 주요핵심 업무는 농지법에 근거한 지사 등에 자문하는 것임

② 농업회의 운영은 어떤 기금은 연간 1억엔으로 나가노현(6천만엔), 회원의 회비(2천만엔), 농업자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2천만엔)으로 충당하고 있음

-회원, 협회, 농업개발공사 등에서 내는 회비

-지출항목으로는 사무국 등 인건비(6천만엔) 기타 관리비, 회의비 등 운영비(4천만엔)

③ 농지관리, 농업후계 육성 등 주요업무는 전국농업회의소로부터 위탁 받아 추진하는 업무임

-위탁받은 실질적인 기능은 시정촌 농업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실시함

④ 농업회의소에서 정부 또는 나가노현의 농업에 관한 예산을 늘려달라고 건의하지만 농업예산의 분야별 편성 정도에 대하여 관여 할 수는 없음 즉, 농가의 목소리가 농업회의소를 통해 건의된다.

⑤ 나가노현 의회와의 관계는 의회가 상위개념임으로 정책을 건의하는 정도이며, 현재 농업회의 회장이 현의회 의원임

4 비공식 방문지

1	구마모토 안테나숍(熊本よかもんSHOP)
---	------------------------------

□ 위치 : 일본 오 점내에 “특산품코너로개설”

□ 개설목적

- 구마모토현은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등의 수도권 소비촉진 및 연구개발 자료수집
 - 초기에 동경 구마모토현 사무소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였으나, 대부분 출향 인사들만이 이용하는 문제발생

□ 시설 현황

- 일본 간사이 지역의 로손 편의점은 약 1,800여점이 분포
 - 이중 오사카 츄오구에 있는 로손 편의점에 약 10㎡ 정도의 규모로 구마모토현 가공품(식품, 수공예품) 및 주류 등의 진열판매

□ 운영현황

- 입점조건 : 로손에 위탁판매 형식으로 운영, 생산자가 판매액의 약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
 - 구마모토현에서는 시설임대료 월 12만엔(160만원) 정도 지불
- 판매품목 : 가공식품, 전통주, 문화상품, 공예품 등
 - 생수, 된장, 술, 가공품, 음료, 캐릭터상품, 과자류 등
- 월매출액 : 50만엔(이벤트 행사시 70만엔)
 - ※ 판매를 통해 수익창출 보다 지역상품의 홍보와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에 관점을 두고 있음(오사카 구마모토현 사무소 관계자 전화통화)
- 입점방법 : 상품 입점은 구마모토현 브랜드과에서 관리하며, 생산자가 직접 택배로 배송

□ 시사점

- 대도시의 소비자들에 가장 가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존 시장과 충돌하지 않는 편의점 내 입점방식 도입
- 관리와 운영을 편의점 직원이 담당함으로 별도의 인건비 필요하지 않고, 매월 임대료만 지급함으로 운영경비를 최소화
- 상품구성의 한계성
 - 편의점의 특성상 소규모 공간에 진열할 수 있는 상품이 안정되고, 농산물이나, 부피가 큰 제품의 판매에는 적합하지 않음
 - 편의점 고객층이 한정됨

2	쓰루하시 전통시장(오사카)
----------	-----------------------

□ 위치 : 일본 오사카부 쓰루하시(鶴橋) 쓰루하시역 6번출구 주변

□ 시장현황

- 오사카의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릴 만큼 교포들이 많이 분포
 - 1920년대 쓰루하시 부근에 히라노(平野)운하를 건설할 때 끌려온 한국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이 현재의 시장을 이루고 있음
- 식료품, 한복, 침구, 김밥, 라면, 부침개, 떡볶이, 잡채, 족발, 불고기 등을 판매하는 곳이 많으며, 특히, 한국 전용식당이 많이 자리하고 있음(대부분의 식료품들은 한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구성)
-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사카를 방문하면 찾는 음식 명소이며,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많이 방문하는 곳임.

3	미치노에끼 마가렛스테이션(시가현)
----------	---------------------------

□ 위치 : 일본 시가현(滋賀縣) 히가시오미시(東近江市)

□ 시설 출자현황

- 125백만 엔(히가시오미시 : 1억엔, JA湖東 : 2천만엔, 상공회 : 5백만엔)
- 직 원 : 36명(대표 : 1명, 정직원 5명, 임시직원 13명, 파트타임 15명, 노인 2명)

- 매출 : 67천만엔(2012년 기준)
- 내방객 : 553천명(2012년 기준)

□ 시설 구성

- 농산물 직판장 : 농산물, 화훼, 가공품 직판
 - 모두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써 모든 농산물에 생산자 이름과 사진 표시
 - 소비자가 어디서 생산되고, 누가 생산했는지 확인하고 구매
 - 매일 신선한 야채, 과일 등 농산물 판매
- 전원생활관 : 꽃공방, 레스토랑, 판매장
 - 특산물이나 허브, 드리아 플라워 Shop, 꽃공방, 레스토랑 등
 - 허브 등 멋진 선물을 구매할 수 있고, 신선한 야채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공간
 - 생화나 허브·포푸리 등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며, 10명 이상은 단체 예약 가능
 - ※요금은 1만엔에 재료비 별도이며, 약 1시간 동안 만들기 체험
- Rapyt 공방 : 체험 및 판매
 - 안전한 농산물을 소재로 한 신선한 아이스크림, 구운과자, 잼, 주스 등을 제조 판매
 -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쿠키·구운과자·빵에 사용하는 소맥분은 무농약 국산 밀을 사용
 - ※쿠키, 구운과자는 시가현산, 빵은 홋가이도산을 사용
- 휴식공간
 - 방문자의 휴식 장소, 위안의 공간으로 활용
 - 식품 오일을 사용한 다양한 향기체험이 가능하며 휴식공간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
- 지역 농식품관 : 가공기술 교육 및 체험장
 - 지역에서 수확한 것을 지역의 가공기술로 만드는 지산지소 상품 진열
 - 방부제나 첨가물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품 판매
- 에코플라자 유채꽃관 : 환경체험 교육장
 -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21세기의 과제라고 판단
 - “사랑 묻는 유채꽃 에코 프로젝트”는 지역내 완결을 목표로 하는 작은 실천운동
 - 교육·계발·실전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자원 순환형의 지역만들기를 선도하는 거점시설

□ 특이사항

- 다양한 지역 농산물, 그리고 생화는 물론 가공된 드라이플라워, 가공식품 등을 여러 공간에서 분할되어 판매되고 있음

- 시설구축은 시청, 농협, 상공회가 공동 출자하여 구축하고, 상공회를 중심으로 한 제3섹터 운영방식 도입

□ 일본 농업공원 개요

- 이번 일본 연수지의 핵심 공간은 일본에서 ‘농업공원’ 이라 불리는 곳으로 한국의 ‘농어촌테마공원’ 에 해당하는 곳임

○ 정의 및 개요

- 농업공원이란 일본에서 농업파크로도 불리며, 풍요로운 자연을 기반으로 원예, 조경, 농업에 대한 이해와 환경 및 식생활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한 레크레이션 장소로서 농림수산성이 주도하여 전국 각지에 조성한 시설
- 농림수산성 규정에 따르면 ‘농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거점으로서 농업 생산과 체험 및 전시 기능, 레저 및 레크레이션 기능 등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재 확보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한 공원을 말한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민간과 제3섹터 등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고 되어 있음
- 결국 농업을 기본으로 한 테마파크. 단, 행정 추진형에 매몰된 유형, 독일이나 덴마크 등의 농촌풍경을 건물 모형으로 만든 유형 등 획일화된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음
- 어느 유형이나 자연과 도시라는 상반된 환경을 조화시킨 공간으로서 지역과 풍토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설치자, 운영자, 이용자 모두에게 매력 있는 시설로서 계속 정비될 것이 기대되고 있음

○ 분포

-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농업공원은 약 30개소이고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간사이(関西) 지방에 특히 집중
- 이번 일본 연수에 포함된 모쿠모쿠농장도 간사이 지방에 있음

□ 일본 미찌노에끼(道の駅) 개요

-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 체험 공간 등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의 하나로 미찌노에끼(道の駅)가 있음. 흔히 국도변 휴게소라 불리는 곳임
- 미찌노에끼는 고속도로 휴게소 기능을 국도에도 적용하여 설치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농업 개편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

○ 정의 및 개요

- 국토교통성(제도 개시 당시는 건설성)에 등록된 시설로 휴게기능과 지역진흥 기능을 일체로 묶은 도로시설. ‘철도 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원래 ‘역’이란 도로변에 있는 숙박 장소를 말하는 용어임

○ 설치배경

- 고속도로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로 서비스에어리어(SA)나 파킹에어리어(PA) 등이 정비되어 있지만, 일반 도로에는 공적인 휴게소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고 민간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이나 매점이 있는 드라이브인이 휴게소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한정되어있고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음
- 장거리 여행이 늘고 여성과 고령자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국도에도 안심하고 자유롭게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공간이 필요해짐
-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개성 있고 재미있는 공간을 바라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휴게시설에 국도변 지역의 문화와 역사, 명소, 특산물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나아가 이런 휴게시설이 개성이 풍부하고 사람 왕래가 잦은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지역의 핵심이 형성되고 활력 있는 지역 만들거나 도로를 매개로 한 지역 간 연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이런 점을 배경으로 도로이용자를 위한 ‘휴게기능’,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발신기능’, 그리고 미찌노에끼를 매개로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가 일어나는 ‘지역연계기능’, 이런 세 가지 기능을 병행하여 가질 수 있는 휴게 시설로서 탄생

○ 기본적인 제공 서비스

- 주차장, 화장실, 전화는 반드시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안내인이 있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

- (1) 주차장 : 휴게 목적의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용량
- (2) 휴게실 :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24시간 개방
- (3) 정보 제공실 : 도로나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설치
- (4) 기타 다양한 시설
- (5) 이러한 시설에서 중요한 보행경로는 배리어프리

- 2004년 10월에 발생한 니가타 대지진을 계기로 방재기능을 추가하여 단수시에도 사용가능한 화장실, 비상식량 및 음료수 비축, 정전시 비상용 전원 등을 확보하도록 함



○ 설치 주체

- 기초 자치단체(시정촌)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공공단체
- 설치예산은 국비 등 공공예산이고 운영주체는 직영, 민간 위탁, 제3섹터(대부분)등 다양
- 대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도로관리자(국가 혹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정을 맺어 건설하고 국토교통성 도로국에 등록
-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건설하는 경우라도 미찌노에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 컨셉이 일치해야 하고 도로관리자의 추천이 필요함 즉,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미찌노에끼로 등록 가능함
- 1992년에 전국 공모를 거쳐 상징마크를 확정하고 등록된 미찌노에끼의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상징마크

○ 설치 역사

- 현재 제도상으로는 1993년 4월 22일에 정식 등록된 전국 103개소 시설이 제1호에 해당함
- 물론 미찌노에끼 등록 이전에 설치하여 스스로 발상지라고 부르는 곳도 있음
- 설치 역사
 - 1990년 1월 中国·地域만들기 교류회(히로시마시) 최초 제안
 - 1991년 10월 미찌노에끼 실험적 설치(~1992년 7월, 12개소)
 - 1991년 교통안전사업 대상사업에 추가
 - 1993년 1.18 정부 공식 조직에서 ‘미찌노에끼’ 제안
 - 1993년 2.23 ‘미찌노에끼’ 정비에 관한 요강 수립

○ 시설 위치 및 등록 수

- 휴게시설로서 이용하기 쉬운 곳, 미찌노에끼 상호간의 기능분담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위치. 대개 10km 간격 이상이어야 하고, 그보다 짧을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함
- 2013년 4월 1일 현재, 총 100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1990년대말에 급증하였고, 지금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